복 있는 사람 ⑤ -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7)**

 ------------------------------------------------------------------------------------------------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 중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살펴봅니다.

‘

긍휼히 여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말 사전에서 ‘긍휼’(矜恤)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뜻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자비’(慈悲)입니다. ‘자비’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비’가 베푸는 이의 마음의 크기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긍휼’은 베푸는 이의 마음의 움직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큰 틀에서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말 성경에도 둘이 혼용되거나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표준새번역 성경의 경우 오늘 본문을,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라”라고 번역합니다.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입니다. 이것은 라틴어 ‘파티’(*pati*)와 ‘쿰’(*cum*)에서 파생됐는데,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본문에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엘레에몬’인데, 이것은 자비와 긍휼의 태도를 넘어 구체적인 자비와 긍휼의 행동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카밈’, 이것은 ‘하나님의 자궁’을 일컫는 말입니다.  긍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그분의 긍휼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태어나게 하는 근원이라는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로 볼 때, 긍휼은 평범한 친절이나 부드러운 마음씨 이상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긍휼이란, 고통받는 누군가와 고통을 함께하는 것,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두려움, 슬픔과 낙심의 자리로 가서 거기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서서 낮은 곳의 좀더 불운한 자들에게 동정의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직접 그 사람에게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 거기에 자리잡는 것입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어려운 때를 맞게 되고,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위로와 위안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때입니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 내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 순간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너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만큼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해 줄 때, 우리는 거기서 참된 위로와 위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즉 상대방이 새로운 일을 행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고안된 방법과 기술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어려운 선물을 잃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선물을 잃어버린 이유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일에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지…

*“왜 제가 이 사람을 방문해야 하죠?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할 말도 없다고요. 도대체 제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종종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잊습니다. 이렇게 무익해 보이는 일, 젠체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저 함께 있어 주는 일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와 위안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릴 위해 하시는 일이 이런 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주시거나, 우리의 길을 다 보여주시거나, 우리의 의문에 모두 답해 주시지는 않는 듯 합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문제와 혼돈과 의문 속으로 들어오셔서 거기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선택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천 년쯤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결속되어 함께 살기 위해, 우리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함께 겪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때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쏘아붙이는 말을 듣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지 않았잖소. 당신은 우리처럼 굶어 보지도 않았고, 추운 데 내몰려 본 적도 없고, 억울하고 비참한 게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우리 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함께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군가도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복음서에는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만 딱 열두 번 언급되는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긍휼로 마음이 움직여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때 사용된 헬라어 동사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몸의 내장’을 뜻하는 ‘스플랑크나’라는 명사에서 왔습니다.  사람의 ‘뱃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곳은 강렬한 사랑과 강렬한 미움이 커가는 중심 장소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그저 “불쌍히 여기사” 정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자면 “뱃속 내장이 흔들릴 만큼 긍휼로 마음이 움직여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고침을 받고자 사방에서 몰려온 장애인들을 보시고, 당신의 뱃속 내장이 흔들릴 만큼 긍휼로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십니다. (마 14:14)

어느 날인가는, 외아들을 잃고 울며 장례행렬을 따르던 한 여인을 보시고, 역시 뱃속 내장이 흔들릴 만큼 긍휼로 마음이 움직여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십니다. (눅 7:13)

또한, 지난 목요일 성경공부 시간에 다루었던 본문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서도 바로 이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환자는 병이 나을 때까지 동네 밖에 격리되어 있어야 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그 환자는 즉시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자신이 부정한 자이니 조심하시오,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환자는 그 규정을 어기면서 예수님께 나아와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그만큼 낫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능히 자기를 치유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확신할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 의향’이었습니다.

“*저분이 나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원하실까?”*

여기 그가 사용한 **‘원하시면…’** 이란 표현 속에는 그의 이 위축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이어지는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스플랑크니조마이’, 뱃속 내장이 흔들릴 만큼 긍휼로 움직여진 예수님 마음은 이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그 나병환자의 몸에 그분의 손을 대신 것입니다. 부정한 자와의 접촉은 율법이 금하는 바요, 부정이 그에게도 전염됨을 의미했습니다. 병의 치유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그러실 필요까진 없으셨겠지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신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왜?  그 순간 예수님은 그 나병환자 속 슬픔의 깊이를 헤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을 어떻게든 어루만져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분은,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처럼 손을 뻗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해지기를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

그 즉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이후 그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차서 그 일을 널리 전파합니다.병이 나았다는 기쁨보다, 이제 가족과 이웃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보다, 자칫 이러다 내가 사회에서 다시 왕따가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마음을 함께해 주셨다는 감격이 그에게는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두려워 피하게 되는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인간의 어려움에 충만히 동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과 삶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긍휼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체험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해준 다른 누군가로부터 경험한 것을 실천하고, 그를 통해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에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신 만큼 우리도 서로 가까워지라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자비로운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이어지는 두 구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38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6:37-38)**

우선, 자비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삼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의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무엇보다 ‘사랑을 기다리는 존재’로 바라보라는 뜻이 아닐까요?

한 사람 안에 어떤 좋은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듯, 그것은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사랑’일 것입니다.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눈빛이 사납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다시금 내 눈빛을 부드럽게 하여 바라본다면, 그제야 우리는 그가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지 모릅니다. 그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찬찬히 부어줄 수 있을 때, 어쩌면 그 사람 속에서 미처 피어보지 못한 채 안으로 움츠러 들었던 꽃봉오리가 다시 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데려다가 그가 평안히 임종하도록 돌보아주었던 경험을 전해줍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는 점차 표정이 풀렸고 결국에는 따스한 미소로 테레사를 바다보다가 눈을 감았다 합니다. 자기 삶과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테레사는 그의 미소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 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만이 사람 속에 잠들어 있는 아름다움의 꽃을 피워냅니다.

자비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또한 용서를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일곱 번 정도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여라”** 이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어떤 임금이 그 종들에게 와서 결산할 때였습니다. 만 달란트라는 큰 금액을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음을 호소하며 참아주길 간청하니,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로 번역된 헬라어 역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이어 그 종이 나가 자기에게 고작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는 자기에게 진 빚을 얼른 다 갚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다른 동료들이 이를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알리니,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히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어 주인은 그 종이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 18:35)**

자비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또한 후히 주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질문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많이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버려졌다 합니다마침 한 제사장이 거길 지나가다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 하나도 마찬가지로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여기 ‘불쌍히 여겨’로 번역된 단어 역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자기 돈까지 내어 주며 그 사람을 돌보아 달라 부탁하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와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야기 말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후히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영혼의 곳간이 이미 풍성히 채워진 사람이 후히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인색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빈궁한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여 끝없이 후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끝없이 모으고, 채우고, 오르려 합니다. 또한 자기가 남과 다르고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는 몸부림일 것입니다.

긍휼도 우리 삶의 가장자리에만 머물러 있길 바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서로를 나누는 줄긋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혹 내 정체성과 존재감을 잃지나 않을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경쟁을 통해 긁어 모을 수 있는 것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으로 평가된다는 것. 나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 나의 자존감은 내가 비상한 일을 해내 칭찬을 얻는 데서가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하나님 사랑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재능을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에 진정으로 관심을 쏟아 주고,  나의 갈등과 고통에 대해 진실로 보살피는 마음을 표현해 줄 때, 우리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서서히 두려움이 녹아 없어지고, 긴장이 해소되며, 불안감이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 선물로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이미 우리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웬은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 중 하나는, 우리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세계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으나 그것에 반응하는 비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긍휼의 사람은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생각하기보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그에게 기꺼이 영향받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단 1분이라도 그와 진정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 옆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잠시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으로 꽃을 피우고 인내로 결실하는 긍휼의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잣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다면 어쩌겠습니까? 아니, 긍정적인 어법으로 이야기합시다.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후히 베푼다면 하나님도 내게 후히 주시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받는 이에게로 가서 그 고통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도 내가 고통받는 자리에 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하시리라 하십니다.

성경을 일상의 언어로 표현한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자비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과 만나는 사람은 마침내 사람들 속에서 피어나는 꽃,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서 신비롭게 피워내는 꽃을 보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통 속에 있는 내 이웃에게 다가가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은 그곳에 오셔서 붙드시고 일으키시며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자기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예비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